

+알렐루야

즐거운 부활을 맞아 가정이 기쁨으로 넘치는 한 주일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 토마스의 의심

·설명 : 램브란트(REBMBRANDT) 작, (1634),
목판 유화, 53 x 51cm, 모스크바 푸쉬킨 박물관

매번 부활다음 주에는 저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바로 토마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다는 어정쩡한 신앙생활과
의심을 했지만 보고 나서 확고하게 믿는 신앙생활 중에
어느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보고 나서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가 믿는다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몇 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아닌가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셨나요?
아니면 느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느끼지도 못했나요?
느끼지 못했다면 결코 기쁜 부활절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항상 마음은 사랑으로 넘칠 것이고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쁜 날 보다 걱정과 근심 속에 지내게 되고
하찮은 일에 화도 내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정열을 쏟아 붓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처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한 주일을 지내십시오.

알렐루야!

토마스

새로단장한 본당 웹 주소: www.sjkoreancatholic.org 많이 방문하시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과
묵상자료를 올려 주세요. 아직도 방문해 보지 않으신 가족이 있나요?